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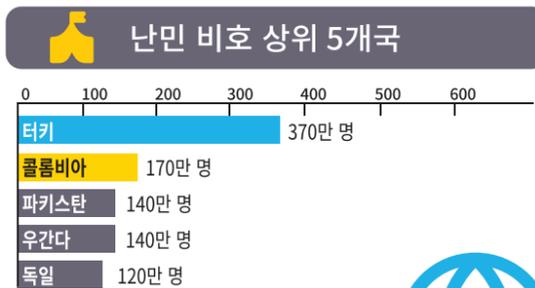
#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난민'

2020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수는 무려 2,640만 명, 2010년의 두 배로 늘어나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난민'이라 부른다. 20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난민 발생 사건은 1911년 러시아 혁명 기간에 조국을 떠난 약 150만 명의 러시아인들과, 1934년 독일 나치 정권이 수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약 250만 명의 유대인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차 대전 후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1998년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등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사태는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수는 무려 2,640만 명으로 20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동안은

## 숫자로 보는 난민 이슈 (2020년 세계 난민 동향)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 2,070만 명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등록 난민 : 570만 명

**등록 난민 : 2,640만 명**

- 100만 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태어난 난민 아이의 수
- 3만 4,400명**  
2019년 10만 7천 800명의 1/3 수준의 재정착 난민 수
- 86%**  
개발도상국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
- 73%**  
출신국 주변국 체류하는 난민 비율

인포그래픽©디아스포라신문사2021

난민 문제가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서 발생한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였다면 이제 더 난민은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이름마저 생소한 국가였던 예멘 사람들이 제주로 상륙하면서 '난민'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국가는 서방 선진국들이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폭력과 박해를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개발도상국에 86%, 난민 발생국 인근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이 무려 73%에 달한다고 하니 낯이 급증하는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 12-13페이지에서 계속

안산 하베스트교회 탐방 취재

#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베스트교회 개척 사역자 멤버들과 어린이 사역 모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이주민들의 발걸음이 자주 모이는 건물이 있다. 바로 하베스트교회이다. 이곳에서 만난 크리스티나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사역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내전을 피해 고단한 날들을 보냈다. 크리스티나가 난민의 신분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역자이신 어머니의 신앙 교육, 미국 하베스트교회의 비숍(Bishop), 그리고 멘토인 아모스 목사의 훈련 덕분이라고 한다.

### 안산에 하베스트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0월, 모두가 예민하던 시기에 신앙 모임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며 눈

총을 주는 주민들을 피해 크리스티나가 찾아가던 장소는 공원이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큰 감격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주변의 시선 속에서 크리스티나는 예배드릴 공간과 동역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견한 건물이 지금 있는 하베스트교회다. 계약 당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계약금이었지만 건물주는 크리스티나의 사정을 듣고 보증금을 반으로 낮춰주었다. 또한, 미국의 난민교회인 하베스트교회가 크리스티나의 소식을 듣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다. 마침내 경기도 안산시 한 모퉁이에 라이베리아 안 아모스 목사, 크리스티나, 한국의 송나무 선교사의 동역으로 하베스트교회가 세워졌다. 하베스트교회는 이주민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모인 성도들은 모두 난민이다. 교회 설립을 기점으로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난민이기 이전에 먼저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크리스티나는 성도들을 볼 때도 난민이라는 틀 안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통로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 하베스트교회의 목회 철학

하베스트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을 방문하여 물품 후원도 주기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성도가 자신을 바라보도록 양육하는 하베스트교회의 목회 방식에서 시작된다. 성도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약

자가 아니라 거꾸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배운다. 크리스티나는 교회가 이주민의 정체성을 한정 짓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족쇄에서 벗어나도록 자유를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베스트교회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이 땅을 자신의 고향처럼 느끼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역에 중점을 둔다. 크리스티나는 이러한 사역이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이 땅을 거쳐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하베스트교회는 협력사역으로 아주나무 센터를 주중 운영한다. 아주

나무 센터는 콩고, 앙골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이집트, 알제리 등 아프리카 이주민들과 파키스탄, 러시아, 고려인 등 교육 취약계층 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평일은 1365를 통해 방문한 자원봉사자와 안산대학교 간호대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한국어 수업, 수학문제집 풀이, 예체능 활동, 성경구절 암송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며 아이에 따라 각자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도 한다. 안산시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81,013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로 1,456명이 안산에 거주한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은 안산 등록 난민 수의 40%에 달하는 558명이다. 안산시 거주 난민 중 약 73%가 단원구에 모여 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고 말씀하셨듯이 하베스트교회는 난민이 있는 곳에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베스트교회: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2층 201호 / 문의 송나무 선교사 010-2025-7123 /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난민 위한 '피난처' 탐방 취재

# 국제난민을 돕는 기독 NGO, '피난처'를 가다

....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아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 (사 66:18-21)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법률 관련 인권 운동을 거쳐 중국에서의 탈북민 사역을 해왔고, 지금은 난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는 탈북자와 난민이 본질 면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고, 1999년 6월에 피난처를 설립하여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피난처는 국제난민들을 돕는 기독 NGO로서 북한 난민의 구호, 재난 및 분쟁의 방지와 국제협력, 국제평화와 인권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의 비영리법인이다.

피난처는 이 땅에 온 난민들이 도움을 받고 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명명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2000년도 초부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쿠르드족 난민과 함께하였다. 이 중 이라크 쿠르드족 3명의 난민 신청이 거절되어 미등록으로 남았는데, 이들을 위하여 법률로 인도적 체류를 돕게 된 것이 피난처의 처음 난민 사

역이었다. 이후 2001년에는 버마족, 방글라데시 줌머족, 콩고인들을 지원하였다. 이 대표의 부인(조명숙)은 2004년에 여명학교를 세워 탈북민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었고, 피난처는 여명학교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며 2019년 12월에 사역이 확장되어 국내 난민 NGO로 서게 되었다. 2018년 예멘 난민의 상황을 계기로 한국세계선교회 협의회/KWMA의 난민 선교 실행 위원회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피난처 구체적인 사역으로는 첫째로, 난민 보호가 있는데, 난민신청절차안내 및 상담, 통역, 번역 지원, 시민교육 및 홍보 캠페인,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문화활동, 인권개선으로 진행된다. 둘째는, 국제난민 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남자 20명(가산동), 여자 5명(상도동)에게 평균 1개월간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피난처 4층에는 난민을 위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워놓고 현재는 3명 정도 머무르고 있다. 셋째로, 난민들의 커뮤니티 및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생계 지원, 의료 기관 연계 지원, 심리상담 연계, 가정방문, 아동교육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넷째로, 취업 프로그램으로서 본국 경



피난처 이호택 대표와 사역 현장 모습

힘을 토대로 현재 및 미래 계획 상담 및 후속 교육과 취업으로 연계하며, 난민 본국 음식개발을 통한 난민 셰프 양성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개발 협력 영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또는 난민 커뮤니티의 전인적 개발 협력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난민 발생지역의 인권상황 조사 및 난민촌 지원 그리고 지역 및 해외 난민단체 및 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 해외 탈북난민의 구조를 위하여서는 북한 인권과 탈북난민 보호 캠페인(탈북난민 강제복송저지 및 북한 인

권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 도망가는 발걸음, 사명자로 부르심

피난처 사역자들은 난민들이 간증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위탁하여 주님께서 하셨음을 확인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덧붙여 이호택 대표는 말한다. “난민은 삶의 토대가 있는 자신의 고국에서 삶의 토대를 빼앗기거나 무너져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들의 발

걸음을 통해 부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친히 불러 모으신 택한 사람들이다. 우리 생각에는 토대가 무너지고 잘못되고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서 먼 섬까지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려고 보내신다(사 66:21)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다”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 단기 1, 2년 선교사 모집

### GC(Global Challenge) GA(Global Action)

사역지 : 남미, 로고소프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자      문의 : 031)698.2372

지원 마감 9월 24일(금)	허입시험 10월 2일(토)	허입면접 10월 12-15일(화-금)	합격발표 10월 18일(월)
--------------------	-------------------	-------------------------	--------------------



WWW.OM.ORG

# 아프간 사태와 무슬림 난민 선교

##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

### 이병수 교수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조직신학 석사 및 선교학 전공
- 고신대 국제문화 선교학과 재직
- 국제다문화 사회연구소장,
- 부울경이주민네트워크 상임대표

270만 명이다. 그 숫자 중 아프간과 가장 가까운 파키스탄에 140만 명 이란에 약 100만 명 아프간 난민이 생활하고 있다. 그 외 약 3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터키, 그리스, 동유럽 및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에 생활하고 있다. 국내에 아프간 이주민이 기존에 400명이 있었고 최근 391명이 한 국에 들어왔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

민들은 자원해서 이주하든 어쩔 수 없이 이주하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슬림 난민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슬림 난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구원역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심이 아닐까? 필자는 향후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내부 균열, 이슬람 정부의 부패와 독재와 무능력 때문에 젊은 무슬림들 가운데 무신론자의 증가, 세속화의 물결에 이슬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 정부의 현재 변화되지 않은 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도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과 SNS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방송 및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간 이슬람 선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고린도후서 13장 믿음, 사랑, 소망의 관점이다.

난민촌에서 만난 난민들이 고국을 떠난 이유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절망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절망한 난민들에게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그들을 선교사와 교회의 사랑어린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난민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부흥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이란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호메이니의 원리주의 이슬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위협과 공포에 두려움 가운데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 몰려오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일부는 비행기를 잡고 공중에 올라가다가 손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높은 하늘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보았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아프간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급진적·자기희생적 제자도, 어떤 수고와 희생도 불사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 교회에게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라는 외침에 귀 기울이자.

“첫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그들의 처참함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프간 내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셋째, 이 아프간 사태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카불이 함락되고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대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종식으로 미국과의 20년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미국은 이제 더는 아프가니스탄에 매달려 재정과 시간과 미군의 생명을 손실하지 않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겨루는 중국에 더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결과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후 폭풍이 예상보다 크다. 탈레반의 공포정치와 IS가 재연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두려움이 많다.

최근 아이를 밴 아프가니스탄 임신부 여성 경찰이 총으로 탈레반에 의해 사살되는 일도 생기고 남아있는 여성들과 탈레반의 조혼 및 강제결혼까지 하는 상황 등은 2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 걱정이 되는 형국이다. 전 세계에서 핍박과 박해로 가장 위험한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순교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 약 7,500만 명 중 아프간 난민이 약

회와 그리스도인은 아프간 난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그들의 처참함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프간 내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셋째, 이 아프간 사태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난

# MMTS4P

귀국선교사를 위한 이주민선교학교

필드 선교사님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귀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이주민선교에 참여케 하심입니다. 워터국제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MMTS4P를 통해 귀국 선교사님들께 이주민선교사역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MMTS4P는 Prayer, Pre-Mission, Prizm, Peg 등 4가지 영역에서 10주 동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로잔디아스포라 GDN과 NextMove, iCDM 그리고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파트너십으로 함께합니다.

귀국선교사를 위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4P**

- ✓ 정부정책
- ✓ 이주민신학
- ✓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선교
- ✓ 단일문화권에서 행하는 타문화사역
- ✓ 케이스 스터디1,2
- ✓ 현장탐방 1,2
- ✓ 개인별 맞춤 선교 컨설팅
- ✓ 사역계획 등의 실제적인 커리큘럼

문의 : 임진숙선교사 010-7590-0691 / E-mail:imdivine@hanmail.net

워터국제선교회
GDN
NEXTMOVE
iCDM
주안대학원대학교
이디비뉴스신문
디아스포라신문
한국국제선교연합회 KIMA

▶ 캄보디아인 남편과 결혼,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

#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글 김인정 선교사



“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생활했을 당시 함께 했던 성도 중 캄보디아로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쉬는 날에는 장시간이 걸려도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한 성도 중에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다. 신앙이 없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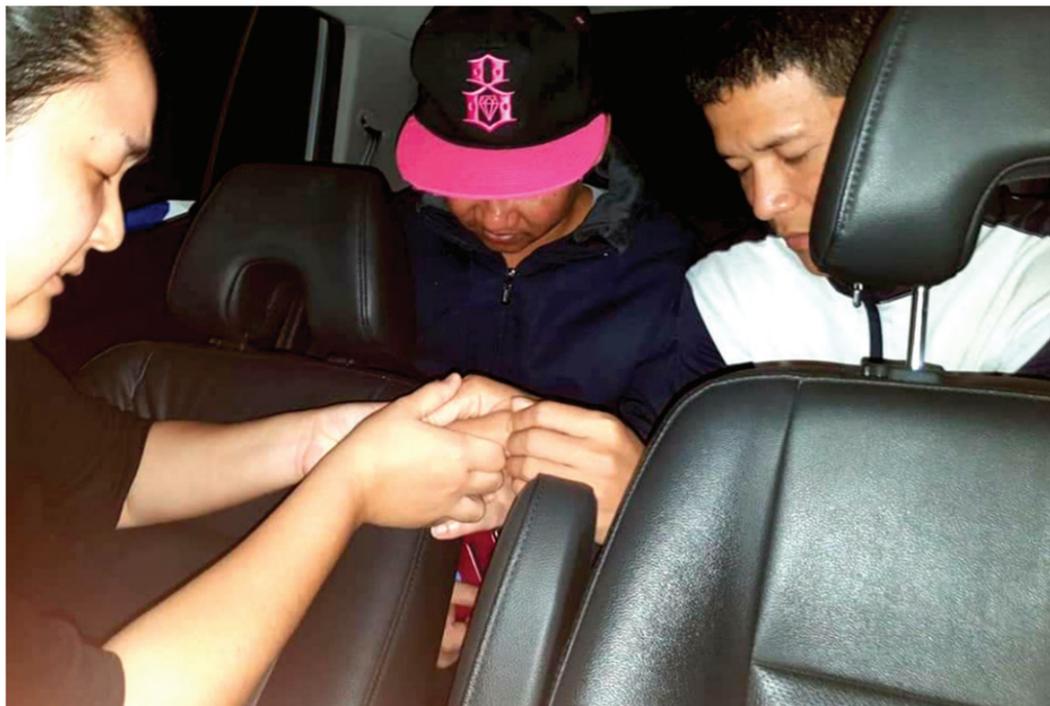
변화는 더디고 느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성장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의 지체가 캄보디아로 돌아가 사역자가 되었고, 5명은 교회 리더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생활했을 당시 함께 했던 성도 중 캄보디아로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쉬는 날에는 장시간이 걸

도들도 있다.

최근에는 한 성도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직접 찾아갔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앙이 없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예배, 성경공부, 성경암송, 큐티, 십일조 등에 매우 성실했던 성도였다.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도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당장 관계를 끊기보다 힘을 갖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주님 안에서 식구이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잃으면 안 된다. 은혜로 주어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며 이웃들에게도 길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캄보디아로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심방을 통해 교제를 이어가는 김 선교사의 모습.

20대 초반, 캄보디아에서 3년 동안 헌신하다가 좀 더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고자 귀국하여 신대원에 갔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캄보디아어 예배 사역자로 섬기면서, 그때 만난 캄보디아인 남편과 결혼을 했다. 현재는 남편의 고국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로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권속’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한 식구이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가족 같은’과 진정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성도들은

정말 가족으로 대하려 한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개 종교 혼합주의 사상(불교, 힌두교, 정령숭배)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만난 캄보

디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도록 인도하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그들의

려도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한 성도 중에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성

200 NATIONS LEADERS' MISSIONS CONGRESS I

##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대회

일시  
2021.11.2(화) - 4(목)

11.2(화) | 11.3(수) | 11.4(목)

성경 | 기도 | 자녀

계신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행 13:1-3, 막 16:15)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를 넘어 생방송  
매일 3시간, 3일간의 온라인 진행  
기독교 신앙의 본질 회복과 실천

1차 등록 | 1인당 10,000원 (2021. 8. 31 까지)

2차 등록 | 1인당 15,000원 (2021. 9. 1 ~ 30)

3차 등록 | 1인당 20,000원 (2021. 10. 1 ~ 31)

등록링크: <http://bit.ly/200awmj>

송금계좌 : 1005-204-166902(우리은행) (사)에이더블유엠제이선교회

# ‘흠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신학을 다시 돌아본다

## 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을 애도하면서

글 이창배 편집국장

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조문을 빈소가 마련된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나니 성전으로 지난 9월 15일 오후에 다녀왔다. 아직도 낮 기온이 여름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나마 간간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버스로 바뀌 타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류장에 도착했다.

36년 전 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처음 찾았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초원아파트 앞을 지나며 선교센터 사이로 영산빌딩이 들어선 것도 오래전의 일이 되고 보면 새롭다 할 것 없는 예전 모습 그대로이니 문득 감회가 아련하다.

그땐 나름 중소기업체의 대표이었고, 큰딸이 아주 어렸을 때이다. 아내와 함께 첫 예배에 참석해 처음 나온 성도라 자리를 배려 받아 강단 중앙에서 비교적 가까운 우측 좌석에 앉게 됐다. 당시로 높은 천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전등 빛이 마치 우주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성전의 규모는 매우 크고 높았다. 그 수많은 자리를 빼꼭히 채워 앉고도 성전에 들어오진 못한 사람들이 복도에

줄을 설 정도로 엄청난 인파에 놀라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첫 설교의 내용을 기억할 순 없지만, 예배의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다. 조 목사님의 설교에는 큰 은혜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설교 후 조용기 목사님의 신유기도가 시작됐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손이 어깨로 올라갔다.

기적이었다. 어릴 때 일인데 중학교 시절 야구를 한답시고 어깨뼈를 다쳤고, 그 후로 링 체조를 하면서 뒤로 넘어가다가 떨어져 일시 허리가 마비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됐다. 그 뒤로 오른쪽 손을 번쩍 치켜들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생겨서 어깨 위 이상으로 팔을 뻗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차라 스스로 손을 뻗어 올리거나 자신에 놀라움이 컸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 놀라움은 대단했다. 어떻게 손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게 순간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지 이해는 다 안 되었어도 그것이 나에게겐 신유기도의 능력이라고 인식됐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 후로 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열심 신자가 됐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돌아볼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또한, 조용기 목사님은 내 삶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나니 성전에 마련된 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빈소 모습.

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존경하는 나의 영적 아버지요, 스승으로 자리매김이 됐다.

빈소에서 조문을 마칠 때까지 그저 머리가 텅 빈 것 같았다. 멍한 기분으로 빈소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건너가 다시금 교회 쪽을 바라보니 그 큰 교회 한쪽 면을 두르듯 서 있는 조화가 눈에 들어왔다. 검정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의 행렬과 자동차가 끊이지 않는다. 건물은 예전 그대로인데, 웬지 낯설게 느껴진다.

오래전 조 목사님과 만남 이후로 변화된 내 삶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교단신문 편집국장으로, 유럽 파송 독일 선교사로 22년 사역을 마치고, 지난해 연말 고국으로 귀국한 지금까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인연의 끈이

여기에서 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자못 한편으론 속이 서글프고 또한 개운하단 느낌도 교차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맴도는 아쉬움 그것은 첫 교회요, 첫 스승이요, 따라야 할 모델로 삼았던 그 분이 안 계신단 생각이다.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할 터이지만, 그래도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허전함이 온 몸과 마음에 감도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허둥지둥 빈소 밖으로 나왔다.

9월의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다. 햇살이 투명한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독일에서 살아온 22년, 광야에서 살듯 디아스포라의 삶을 몸으로 겪으며 살아온 나에게 마음 둘 곳이란 오로지 주님 계신 그곳 하늘나라뿐인

것을 왜 모르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사실은 나의 나그네 된 삶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이 두 손을 들어 반겨줄 것이란 믿음 만큼은 확고하다. 이 믿음이 내겐 산소망이고, 험한 세월 디아스포라의 삶을 견디게 해준 동력이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 자리를 떠나왔다.

이 땅에 거대한 성채도, 어마어마한 빌딩도 결국엔 머리 돌 곳은 아니다. 고인이 되어서 먼저 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신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흠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신학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어떨지 가늠해 본다.

# NEXTMOV KOREA

## Solutions for Diaspora Missions

NextMove exists to serve the global missions movement to more effectively engage in diaspora missions.

[www.nextmove.net](http://www.nextmove.net)

이주민 선교 다이제스트

# 한국사회의 이주민 증가 추세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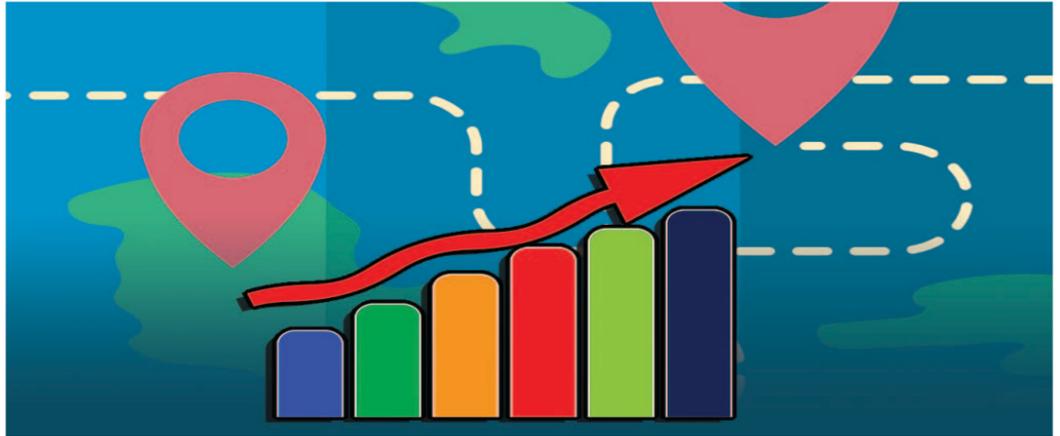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997년 개정된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헌법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우리나라는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등의 이주민들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주민이 100만 명에 이른 2007년까지 60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로부터 6년 후인 2013년에는 이주민이 50만 명 증가하여 150만 명이 되었고, 또다시 6년 후인 2019년에는 100만 명이 증가하여 250만 명이 되었다.

이런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 이민자는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낮아

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3.3%였다. 2019년 결혼 이민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82.6%(137,094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17.4%(28,931명)였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곧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다문화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결혼 이민자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혹은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정체성 혼란, 학습 부진, 정서(심리) 장애, 일탈 행동 등의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 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2세



로 부르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개정된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헌법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또한, 이들은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교육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이들이 사회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취학률은 낮고 학업 중단율은 높으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두 번째는 차별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외모에 있어서 혼혈로 인하여 외모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언어 문제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일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배웠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중도 입국한 자녀들은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는 이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야 하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에 더해 한국교

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따라 땅 끝으로 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도 해야 하지만, 땅 끝에서 오는 영혼들을 맞이하여 섬기는 환대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창 1:26)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전 13:4-7).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롬 3:22).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6-8).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고(빌 2:1-5), 바울 자신도 이 마음을 품고 사명을 다했으며(행 20:19),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딤후 4:7).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 사랑의나눔

### 밥상과 마켓을 시작합니다

# Shalom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하여 이웃을 돕고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교회는 (사)사랑의나눔과 복지효율화를 도모하며 안산시의  
민간협력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설립예배 \_ 2021. 10. 25

오전11시 / 설명회 오후1시

설립예배 및 설명회 장소 \_ 샬롬교회 성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시낭북로2길11)

(사)사랑의나눔 이사장 서 경 석 목사  
(사)사랑의나눔 공동대표 / 샬롬교회 담임 이 제 순 목사

# 흠어짐, 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다

## 이주해온 나그네들 한국교회의 성장 원동력

### 박정곤 목사



· 고현교회 담임목사  
· 고신총회 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 이사장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이 되던 곳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라며,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마 4:15).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지형학적으로 볼 때 북단에 위치하며 사통팔달이고 가장 비옥한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류의 과수가 있어 주변 이방인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사 9:1-2)로 표현되었습니다. 크기에 비해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와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역 장소의 특징을 볼 때 주님께서서는 이주민들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듯 합니다.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이주의 주인공들이며 난민의 당사자였음을 알

게 됩니다. 히브리어 동사 게르'rwg'(gwr)는 “이방인으로 체류하다, 난민이 되다, 이방인으로 머물거나, 멈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창1-3장).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의 이야기(창 4:12-16)는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주민으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숙시켜줍니다. 그의 자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룻, 또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시대를 사는 이주 난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이름에는 바로 히브리어 동사 구

르'rwg'(gwr)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굴이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까 아굴은 스스로 매우 힘들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단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난민

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흠어져” 모국 밖에서 난민과 이방인이 되었습니다(행 8:1, 4; 11:19-21).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paroikoj’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요 천국으로

그네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는 말씀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로 인하여 이름도 없이 흠어져,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동적으로 선교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 선교의 흐름에 대해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모여진 이주민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흠어지며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이주민 선교의 내용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작금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에 대해 필자는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하여 사도행전적 시각을 가지고 저들에게 사역하며 저들과 함께 사역하여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피한 어린 아기 예수,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흠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순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과 70인 역에서는 그리스어 ‘paroikos’가 히브리어 ‘ger’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며, 일시 체류자나 외국인 거주자와 이주민에 대한 설명을 전하는데 사용됩니다.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피한 어린 아기 예수님의 발자취는 이 땅에 오신 주님마저도 난민이 되셨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마 2:13-15).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박해로 인해 난민들이 되어 모두 흠

어지고 있습니다(벧전 2:11).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흠어진 자들은 큰 박해 가운데 이주한 사람들로서 이름 없는 이주민들, 종교적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이 왕성해져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 11:19-26). 큰 박해가 도리어 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 박해 아래 움직였던 이름 없는 난민들은 교회 성장의 물꼬를 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이주해온 나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교회

#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욱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성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욱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윤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욱,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055-637-5513

Part I 상황(Situation) 에피소드

# 예수라 불리운 형제

글 문창선 편집인

**외**국인 근로자 중 한명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유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국 여성을 강간했다”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찾아가서 만난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보아 그들의 행위가 분명했다. 기가 막힌 것은 그중 한 형제의 이름이 예수였다. 이 필리핀 형제는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채 안 된 형제였는데, 이름이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거절했던 친구였다. 여러 번 찾아가 권면했지만,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이 밍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수감자와 면회자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더군다나 이름이 예수라는 것 때문에 더 그랬나 보다. 그는 이렇다저렇다 말없이 거의 모든 범죄를 다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조금 더 열심히 찾아가 주지 못한 나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다.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권면하였다면 적어도 이 친구가 범법자로 갇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형제의 일은 두고두고 상기되며 나의 사역에 계으름과 나태함이 비칠 때마다 다

“**예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너무도 잘 알려진 기도의 동산이요 영혼의 쉼터였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원으로 향했다. 대천덕 신부와 그 아내 제인 신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한 맞아주곤 하셨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명절이 되면 예수원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나누며 영혼의 힘을 얻었다.**”

시금 열심히 사역에 몰두하게 했다. 2개월 만에 본국으로 추방되는 이 형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면회하면서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비록 유리창 너머에 있어 손잡고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흘리는 눈물을 보아 그는 회개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이후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에게 진실성이 엿보였다. 이 형제의 앞날을 축복하며, 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안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대천덕 신부님

위하지 않으며, 늘 힘써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상담해주겠다”라고 다짐했다.

### 대천덕 신부와 예수원

예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너무도 잘 알려진 기도의 동산이요 영혼의 쉼터였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원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대천덕 신부와 그 아내 제인 신부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한 맞아주곤 하셨다. 늘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예수원 식구들에게, 명절마저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아신 대천덕 신부와 제인 신부는 손수 우리

를 섬겨 주셨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명절이 되면 예수원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나누며 영혼의 힘을 얻었다. 그뿐 아니라 대천덕 신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소식지 “비전(Vision)”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냈던 메시지는 많은 외국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외국인 형제들은 대천덕 신부의 사랑과 영적인 말씀에 늘 큰 힘을 얻었고, 근로자로서 피곤하고 지친 이국땅에서의 삶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나갔다.

1994년 눈이 많이 오는 설 연휴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예수원을 향했는데, 꼬박 이틀 만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 멀고 먼 길, 눈이 와서 온통 새하얀 길에 열두 명이 정원인 승합차에 열여덟 명을 태우고 달려간 그곳엔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 지금도 시간은 많이 지났으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곳에 갔던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늘나라로 돌아간 대천덕 신부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의 손길을 지금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출신 성도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중심의 세계적인 대학**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교육, 온전한 신앙**

### 주안대학원대학교(JIU)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통해 선교사와 “선교사를 지도하는 선교리더”를 양성하는 초교파 선교전문대학원입니다. 선교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박사학위(Ph.D)와 석사(MA, Th.M) 학위 과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본교 홈페이지 [www.jiu.ac.kr](http://www.jiu.ac.kr)를 참고하시거나  
교학처 (032) 446-5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대학원대학교)

# 정부의 이주법을 정확히 파악하라

## 이주법 체계의 수정과 대체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면서 정부의 이주법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저자인 대릴 잭슨(Jackson, Darell ThD, 버밍엄 대학교)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몰링대학교의 선교학과 선임 강사이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선교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영국 레드클리프 대학의 노바연구소Nova Research Center의 설립이사이다. 본인의 영국에서 호주로의 이주 경험을 설명하며 역사가운데 존재했던 각 나라의 이주법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던 이주민들의 예를 들어 이주법의 영역을 다루었다. 저자는 윌리엄 캐리는 관료집단, 정부법, 이주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힘에 대처해야 했었을 것이라며, 이 시대에 움직이는 이주민들이 새 땅으로 가는 길에 비자체계, 국경통제, 고용권리, 거주 권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출입국 관련 관료집단은 자국 내에서, 또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효되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 3장의 내용이 기존의 전문지식을 뛰어넘거나 계속해서 바뀌는 법률, 규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따라잡아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주제의 목적은 전 세계에 떠오르는 이민 규제와 관리 패턴에 대해 전 세계적 차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보다 광범위한 틀을 그려냄으로써 기존의 국가적 전문지식을 보완하길 바라는 것이다. 3장을 통해 빠르게 바뀌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규제법의 복잡성을 바르게 평가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규제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의 일부에 대해 윤곽을 그릴 수 있길 바란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구 국가들이 중동에서 넘어오는 시리아인들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현 상황에 가장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3장은 특별히 규제의 체계와 이민정책 변화를 위한 옹호 사업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 졌다. 이주법의 현 체계를 아는 것은 체계의 수



“ 빠르게 바뀌는 국가적, 지역, 세계적 규제법의 복잡성을 바르게 평가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규제정책에서 중요한 영역 일부에 대해 윤곽을 그릴 수 있길 바란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구 국가들이 중동에서 넘어오는 시리아인들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현 상황에 가장 필요한 작업이다. ”

정과 대체를 위해 효과적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저자는 여러 조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 같은 기관, 특히 유엔 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민기구IOM,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국제적십자HRC는 이주 관리의 통제를 위한 규제 메커니즘과 자문 정책의 초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 이 기관들은 이주민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범위와 고용, 교육, 주거, 복지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고 보호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망명, 어떤 난민이든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농르폴망non-refoulement, 거주 및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과 자격조건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제 체계와 정책은 특정 이주민이나 이주기관을 위한 것일 수 있으나, 대체로 국가와 그 산하 기관들과 부서들을 대상으로 만든다.

국제적으로 유엔난민기구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난민, 망명, 이주정책과 실행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사회적 현상을 모니터

링하기 위한 측정과 평가를 위한,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자’, ‘난민’, ‘망명신청자’ 그리고 ‘국내실향민’이라는 용어는 각각 유엔의 다양한 협약과 조약에 근거하여 정의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정책의 틀 속에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려진 정의에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 정의는 유엔 회원 국가 내에 정책과 실행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다. 국제협약과 국제 의정서의 예로는 1951년 유엔난민지위협약(그리고 1967년 국제 의정서), 1984년 유엔고문금지협약, 1990년 유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국제협약, 그리고 이주민 밀수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매매 방지를 위한 2000년 유엔팔레모협약-이 있다. 이주민과 관계된 ILO 협약은 1949년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 1958년 비차별 협약(고용 및 직업), 1962년 균등 대우협약(사회보장), 그리고 1975년 이주노동자 협약(부칙)이 있다. 광범위한 협약 및 국제 의정서의 예로 보더라도, 국제이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이주 현상에 수반되는 복잡하고도 다면

적인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교차 문화적 선교를 위한 동기 역시 주요 고려 대상이다.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그의 2011년 프린스턴 대학 찰스 테스트 강의 중 기독교 신학이 전통적으로 국제법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국제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기독교 신학자들로 하여금 국제법의 법리학적 위기에 대해 입을 열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13:1-7에서 언급한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교훈을 해석하면서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권세에 대해 언급하는 설교들은 거의 없다. 지금 진행되는 논의와 관련하여, 유엔이나 다양한 지역 기관들의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어느 범위까지 이 기관들의 권세가 바울이 권면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룬 적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13장이 모든 권세가 다양한 수준의 충성을 요구하는 그 대상들에게 부당하고, 착취하는, 부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는 경고의 범위가 남아있기도 하다.

이 주제는 국제규제의 기반적인 환경을 향해하려는 신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규

제는 인간의 권리, 난민 보호, 망명자의 정착 관리, 국제입양절차, 국내 실향민의 고통, 인신매매의 비참함에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가 전 세계를 포괄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이 다양한 이주와 디아스포라 상황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은 분명 교회의 목회적, 선교적 관심의 중심에 있으며, 사람의 과거와 현재 상황과 미래의 계획과 무관하게 복음은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복음은 디아스포라 상황에 살고 있는 난민과 개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복음의 범위는 보편적이다.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은 의도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이주에 대한 규제적 틀이 지닌 보편적 특징과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복음의 보편적인 추진력을 제한할지 모른다. 이는 우리가 국제이주정책과 법을 관찰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적, 선교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특별한 탄압 받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난민, 인신매매 대상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게 이주했지만 “낯선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방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본 3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실천적 행위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선교학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이민자나 난민과 인신 매매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 세계관을 실천하면서 이주민 선교사들은 국제이주 및 난민 정책, 협약 및 의정서 작성에 더욱 기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위엄을 드러내며 영혼구원을 위하여서도 이주법에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번역자 문창선)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주님의 큰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 난민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 난민 돕고 복음 전하는 일 필수적 난민이 자립하고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마 22:39)고 하셨습니다. 작금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남부 수단,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로 인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난민의 물결이 지구촌 곳곳에 크게 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가 난민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들은 극렬한 고통 가운데 스스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 보호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인 우리는 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난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난민의 정의는 1951년 설립된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한 것입니다. 즉 UNHCR은 난민을 “

인종, 종교, 국적, 어떤 사회그룹의 일원, 혹은 정치적 이유로 핍박을 받아 두려움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난민전문 사역자들은 난민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호와 대비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만 하

서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총체적인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람을 총체적으로 대우하셨던 예수님은 인간 본질의 어떤 면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난민들을 도우면서 다음의 내용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낮선

들과 더 잘 연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지식과 사회기능은 더 나아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진천 지역 체류는 짧은 기간이어서 위의 내용을 다 적용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제 2 체류지

을 간과합니다. 대부분 난민은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여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주합니다. 난민들은 강한 의지로 상황에 적응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도 대화할 정도로 유연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최선의 노력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난민들이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정의 경계를 열고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장려해 줌으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난민들이 감정적 피해의식을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열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난민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 변화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주와 생존을 위한 난민들의 출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난민들을 돕는 것은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큰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또 하나의 사명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난민은 절박합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난민들을 돕고,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지원의 단계를 넘어 영혼을 돌보는 원조의 손길을 더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도 그렇듯, 이 일은 의지를 다지고 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고통받는 난민을 우선하여 보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난민은 절박합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난민들을 돕고,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지원의 단계를 넘어 영혼을 돌보는 원조의 손길을 더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도 그렇듯, 이 일은 의지를 다지고 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난민사역은 총체적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난민들의 정

사람들을 육적으로만 섬기는 사역과 거꾸로 복음은 제시하지만, 난민이 당면한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난민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난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난민의 기원, 갈등의 원인, 문화적 교육, 언어 배경, 그들 집단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난민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인류학적 정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난민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난민

의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준비하여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난민들의 입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난민사역의 이해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알려진바 난민 대부분은 무료 구호 물품과 지원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명하고 재능과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들의 꿈을 이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난민들을 희생자로만 보고 그들에게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Empowerment**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기획특집 : 난민(Refugees)

# 한국의 난민 인정률 2% 대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법무부는 단 2명만 난민 인정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9,942	16,173	15,452	6,684	
성별	남	7,825	12,126	10,538	4,721
	여	2,117	4,047	4,914	1,963
국적	러시아	692	1,916	2,830	1,064
	카자흐스탄	1,223	2,496	2,236	603
	중국	1,413	1,200	2,000	311
	말레이시아	448	1,236	1,438	452
	인도	691	1,120	959	420
	기타	5,475	8,205	5,989	3,834

난민인정자 현황 (연도별, 성별, 국적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121	144	79	69	
성별	남	69	73	38	37
	여	52	71	41	32
국적	미얀마	35	36	34	18
	방글라데시	8	7	6	1
	에디오피아	23	14	6	3
	파키스탄	9	13	3	8
	콩고DR	0	8	4	0
	기타	46	66	26	39

자료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몇 명이나 될까? 난민수용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43명이었던 난민신청자 수는 2017년에는 만 명에 육박하더니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에 관한 국제 협약인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정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의 난민 전문 통역인 양성 및 난민 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관

련 부처의 제도적 노력과 난민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국내 난민신청현황과 난민인정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2019년 총 난민신청은 15,452건으로 2018년 16,173건 대비 약 4.6%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로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집트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2018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순이고 2019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순으로 상위 국가는 변동이 없고, 순서 예만 변화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난민 동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 발생 상위 5개국 도표 참조) 난민신청 사유는 기타 사유(47.8%) 신청이 가장 많고, 난민협약상 5대 박해 사유인 종교(24.5%), 정치적 의견(12.5%),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9.5%), 인종(4.9%), 국적(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2%였으며, 이는 OECD 36개국 중 3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법무부는 단 2명만 난민 인정자로 결정했다.

### 난민의 분류

난민은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6개월 범위에서 난민지원시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국민과 같이 초,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와 같은 수준의 처우(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아에타 인준 프로그램 Accreditation Program

1. 훈련/수료 프로그램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2. 디플로마 프로그램 (Diploma Program) - 준 학사 학위
3. 학사 및 신학사 과정 - B.A, B.Th, B.Cm, B.Miss, B.Ce, B.Min, B.Coun 등
4. 대학원(Graduate School) 과정 - M.Div/M.Div equi., M.A/M.A equi., Th.M/Th.M equi., D.Min, D.Miss 등



### 선교지 신학교 인준단체 아에타 AETA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tribes

AETA는 선교 현장에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한인선교사들이고 김활영 선교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교사들이 2004년 6월에 신학교육 포럼과 총회를 시작하면서 "AETA"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교지 신학교의 학위 인준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2021년 8월에 AETA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신학교 인준, 지역학 연구를 통해 70여 개의 컨소시엄과 인준 신학교 회원단체들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의원 박사, 부대표: 김연수 박사, 이사장: 윤형중 박사)

한국본부 연락처  
아에타의 법인  
후원계좌

서울사무실 02-585-2447 / 010-6241-5324(김연수)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등록 제 1977-01-0001호) <AIIS : AET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ETA법인계좌 :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 국민은행 732401-00-003972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 국민기업은행 928701-01-195419  
AETA일반계좌 : 김성찬(AETA) 우리은행 1002-061-011335

HomePage : www.aeta.kr  
E-mail : admin@aeta.kr  
NAS자료실 : nas.aeta.kr

# 난민과의 경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국내 입국 난민 대상 구조와 지원사업 성과 난민 향한 감정적 경계를 거두는 과제 남아

대한민국은 이주민들에게 텃세가 심한 곳일까? 국제이주민기구(IOM)의 자료에 따르면 나라마다 이주민에게 무관심 및 텃세를 부리는 평균치를 56%로 보고하고 있다. 이주민 처지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이다. 그래도 이주민 중에 스스로 이주한 사람들은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겠다고 보지만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라면 상대적 어려움이 훨씬 크다 여겨진다. 최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내로 입국한 난민(정부는 '특별기여자'로 분류)들에게 구조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물리적 경계를 거두었다. 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편, 필연적으로 난민을 향한 감정적 경계를 거두는 일이 그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난민 분야 전문가들은 난민수용이 구조-지원-원조-정착 4단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작업 및 생존유지를 돕는 지원이 1, 2단계에 속하고, 이후 심리적 외상치료 및 정착을 돕는 교육, 직업 알선 등이 3, 4단계이다. 다년간 이주민 관련 전문서적을 번역하고 강의를 진행한 해리 김 목사는 이러한 단계별 난민 사역에 구체적인 주체를

제시하며, "1, 2단계는 정부와 NGO 같은 전문 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면, 3, 4단계는 시민 단체 또는 개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단체

는 사업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내규가 있어서 강력한 동시에 제한적이라 초기 1, 2단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나 교회 같은 단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기에 3, 4단계를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근거를 덧붙였다.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 지역 난민 캠프에서 3, 4단계의 난민 사역을 하는 비

말 박사(Peter Vimalasekaran)는 "난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난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도는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난민 대부분은 대접과 도움이 필요하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자국 내에서 방치됐던 난

민의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개방해야 한다. 이방인과 난민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모습은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다. 롯과 나오미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지금의 난민과 비슷하다. 비말 박사는 "난민은 대부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WMA, 지난 9월1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2차 대책회의 모습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대책 회의 가져

지난 8월 31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충북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섬기기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였다. 모임에는 강대흥 KWMA사무총장, 윤마태 목사(통합), 오일영 목사(기감), 고은영 목사(기장), 진천중앙교회(외국인사역부서장로, 권사, 집사) 등이 참석하

여 현안을 토의하고 아래 합의에 이르렀다.

1.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섬기는데 한국 교회와 선교회는 경쟁하지 않고 연합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노력한다.
3. 진천에서 머무르는 8주 동안 환대의 정신으로 전체

여론을 따뜻하게 만든다.

4. KWMA와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연합 정신을 가지고 8주 후의 정착 과정, 직업 알선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5. 진천 지역 책임자는 윤마태 목사, 지원 센터 책임자는 고은영 목사가 맡는다.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타이밍이다. 난민 대상 연합 사역을 인식하고 잘 준비한다면, 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난민에 대한 교회의 효과적인 섬김과 사역 구축은 올바른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When you drink Lost Tribes Coffee Co.**

coffee, it helps us share the hope of Jesus with Jewish communities and provides much needed medical care.

Order today at <http://bit.ly/lcffeeco>.

Ethiopia authentic coffee

LOST TRIBES COFFEE CO.

## 미얀마 카렌 난민사역 '어울림이끌림' 탐방



어울림이끌림 조합의 이병철 대표

부평구에 사는 카렌 난민들은 최근에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이웃들에게 매번 받기만 했으니 우리도 무엇인가를 돌려주자는 운동을 폈다. 카렌 주부들은 주변의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배달하고 있다. 이렇게 방문하여 한 번에 음식을 나누는 곳이 40가정이나 된다. 아이들은 마침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여 몹시 즐거워했다. 이와 같은 나눔 행사는 10월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속해있는 '어울림이끌림' 단체는 난민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다. 이들은 미얀마 카렌 난민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으로 F2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다. 이미 세 번에 걸쳐 입국한

16가정들로서 현재 94명에 달하며, 그중에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8명 등 35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인천 명원 교사 연수에 적용하고 있다. 미얀마 카렌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난민이 되었는가, 그리고 태국 매소 캠프촌의 난민 생활, 한국에서의 생활, 미얀마 카렌 언어 배우기, 전통춤 등의 내용으로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조합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좋아 지속해서 진행하며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조합의 수익사업 모델 중의 하나이다. 물론 그 수익은 참여한 카렌 난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조합(이병철 대표)은 2013년도에 창립총회를 열고,

## 은혜의 기회 잡은 파일럿

'어울림이끌림'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성공적 자리매김  
"난민이야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제작...수익사업 모델

2014년도에 여성가정부에 설립인가를 받아 난민지원 사역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난민의 날 행사에서 인천시 의회원들 및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포럼을 주도하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난민법 난민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조합의 사업 관련하여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조합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해온 일이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과 사람들도 가치 있게 평가해주는 것 같아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병철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착 난민에 대한 수용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과거 카렌 난민과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지금은 말레이시아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수용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까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난민법은 제정이 돼 있는데 난민법에 따르는 지자체의 조례가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래서 난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여도 근거가 없

으니 예산지원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많이 아쉬워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부족으로 인한 난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가슴 아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난민들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난민 가정 안 부부간의 갈등, 알코올 중독, 집안의 폭력 문제, 자녀들의 교육 적응과 진로 등 많은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 조합은 난민에 대해서는 카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난민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경제적 지원은 취업알선으로, 의료적 지원은 모금 활동으로 병원에 의탁하여 난민들의 건강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실제로 중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향후 20세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측과 연합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나 각 가정의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합의 난민들을 향한 가장 중

요한 지원은 감정적 지원이다. 조합은 카렌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난민 아이들을 무대 단 위에 세워 활동하게 할수록 아이들이 당당해지고 성숙해갔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감동하며 큰 위안을 얻고 정서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감정적 지원으로 난민들의 자존감을 많이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조합의 이병철 대표는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공군과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일해왔다. 그 넓은 하늘을 무대 삼아 일해왔을까, 그의 믿음은 참으로 넓다. 그는 예쁜에셀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 어울림이끌림 조합은 난민이 외로운 나그네처럼 체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그들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우리와 함께 사회통합으로 가며 같은 국민이 되어 가기를 소망한다.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특별기고 : 장기 선교계획 수립 필요

#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글 현한나 박사



이슬람 연구소장  
주안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진정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과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기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애쓴 이들의 눈물과 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승리를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만형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작금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아쉬움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 철수를 재고하고 약자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과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약속과 보호를 이행하지 못하고 국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를 감행한 것은 두고두고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것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대책 없이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에 남아 고통을 당

해야 하는 선교사와 지역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안전이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난민들에 대하여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무서운 속도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 주변국으로 세력을 확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유엔과 미국 행정부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남반구의 여러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데, 서방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도움을 주고자 애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계 기독교인들은 모두 기도에 참여하고, 그

들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이 아프가니스탄 위기를 돌파하여야 한다. 소위 선진국들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진정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과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기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애초에 현명하지 못한 전쟁에 개입하고 회개의 표시로 중단하고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정권의 철수집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탈레반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은 나라를 장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적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임을 알고 더욱 지하드를 실천할 것이다. 시리아 전쟁과 난민 위기는 평화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에 우선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협상을 이끄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을 때 레바논, 터키, 요르단의 선교사들은 난민사역에 직면했고,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무슬림 배경에서 온 수많은 신자를 보았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선교사와 많은 지역 지도자들과 지하 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 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더욱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악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장기 선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애굽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인신매매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국과 서방 국가 난민들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인신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들 난민 위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전해지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결국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처럼 무고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의 난민 재정착의 영향이나 다음 세대를 통해 그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된 고통 없이는 이익이 없다.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애쓴 이들의 눈물과 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승리를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KALAYAAN CYBER CHRISTIAN NETWORK

## KCCN은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미디어, 온라인은  
흠어진 자들이 연대하고 훈련하며 사역할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C/KALAYAANCOMMUNICATIONNETWORK  
WWW.FACEBOOK.COM/KALAYAANCN

ghjeong@gmail.com

길강목 화성외국인보호소장

# 나눔의 발견

“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신속한 조치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고,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함께 자존감을 부여준 계기였다. 대한민국이 전쟁과 폐허 속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나눔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



안수집사, 행정학 박사, 이흐자사국제대 명예법학박사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따스한 환대 가운데 대한민국 생활을 시작했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신속한 조치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고,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함께 자존감을 부여준 계기였다. 대한민국이 전쟁과 폐허 속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나눔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그들의 상처를 공감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이웃들이 진천에 첫 동지를 틀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록의 나무와 길가의 풀들’이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들이다. 그러나 척박하고 누런 황무지에서 살던 그들에게 놀라움이었다. “나무와 풀이 이렇게 초록일 수가 있구나!”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고 진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와 다른 사람(외국인·이민자)을 만나는 것은 마음 한편에 긴장감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생동감도 준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들의 눈을 통해 내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웃사촌을 계기로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역동적이면서 조화로운 코리아를 기대해 본다.

유윤종 교수



평택대학교 피어션 신학전문대학원장, 구약신학 교수

# 내가 난민이다

‘내가 난민이다’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 우리는 이 과제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난민의 문제는 일부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난민이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난민 이야기’이다. 성경의 황금률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



위키 백과사전은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21세기 최첨단 사회에서 국가 내부의 불안정과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의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됨에 따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수많은 갈등이 얽혀 있는 이 시대에 평화의 사도 역할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사역을 찾고 감당하려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제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난민의 문제는 일부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난민이었다. 신앙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 형

제 사이의 갈등으로 밧단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 형제들의 미움으로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집단 이주했던 야곱의 식구 70명도 난민이었다. 그 후 손들도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힘들게 살았다.

다윗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던 난민이었다. 앗시리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 유다로 이주해 난민이 되었다.

남 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난민 생활을 하였다. 귀환했지만 독립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주후 70년 유대 전쟁의 결과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고, 오랫동안 세계를 떠돌며 난민으로 살았다. 성경의 이야기는 ‘난민 이야기’이다.

성경의 황금률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각종 난민의 자리는 그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는 현장이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난민이다’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VISION 전주비전대학교

한손에 성경과 한손에 기술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선교와 기술을 융복합한 전문인선교사 양성과정  
국제협력기술과가 열방을 품습니다.

신입생 모집 안내

입학정원 10명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자

자격 조건

- 교회 및 선교단체 추천자  
- 해외 거주 선교사 추천 외국인  
- 선교에 헌신된 국내외 선교사

전형 일정

- 수시1차 : 9.10(금)~10.4(월)  
- 수시2차 : 11.8(월)~11.22(월)  
- 정시 : 12.30(목)~2022.1.12(수)

- ▶ 국제협력기술과 장학금 지원
- ▶ 선교 훈련 및 1인 1기술 전공제도로 전문인 선교사 양성
- ▶ 졸업 후 선교단체·NGO를 통해 장·단기 선교사 파송
- ▶ 협력 단체 및 기관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울네이션스 경배와찬양(ANM)
  - 위디국제선교회(Withee Mission International)
  -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 국제구호기구 Feed the Children, Korea

희망의마을센터를 소개합니다

# 아랍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 '희망의마을센터'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만나하우스'

“ 아랍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희망의마을센터'는 시작되었고, 의료봉사와 법률상담,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주요 사역으로 시작됐다. 또한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아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년에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만나 하우스' 를 오픈했다...”

글 정연주 센터장  
(사)글로벌호프 N.A.M.E.  
Project Director

해외 사역현장에서 난민들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지만, 동시에 무척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불안정했던 체류 상황에 동료 사역자들이 줄줄이 추방을 당할 때면 늘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해야 했고, 해외에서 성경들과 신앙 서적들과 영상자료 등을 가지고 입국할 때마다 숨막힐 정도의 공포 속에 가방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18개월을 쉬지 않고 수돗물처럼 쏟아지는 설사를 하고 매달 토사광란을 두세 번 겪을 때도 있었고, 모기나 작은 벌레에 물려 잔뜩 부풀어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7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버티며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이었던 1996년 지하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리비아 청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장한평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러 와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다시 사역지로 가야 했기에 청년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한국에 와서 공부할 때 또 지하철에서 리비아 청년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도 역시 인천과 장한평에 아랍

사람들이 많으니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아랍 기독교인들의 의료 연수를 주선해주는 일로 한국에 입국했던 때에는 지하철에서 사우디 유학생들을 만났고, 이태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암 치료 받으러 온 의료 관광객 여성들을 만났고, 어느 교회에서는 아랍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시리아 청년 두 명이 일하며 지내던 폐차장 기숙사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불타고 생명만 건진 사건이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리아 청년들이 소개해주는 여러 국내 체류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의료 연수받으러 온 아랍 기독교인 의료인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시리아 난민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삼성의료원의 신경외과 교수님과 이집트 의료인들과 함께한 이라크 난민을 만나고, 무료 진료 봉사 시간을 안내하려고 장한평에 갔을 때는 많은 수의 아랍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너무 놀랐습니다. 또 2015년 아버지의 간암 상황 때문에 헬레벌떡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만난 리비아 산지의 미전도 종족 출신 가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저를 한국 내 난민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병환 때문



예멘 난민들과 이집트 기독교 의료선교사와의 만남

이나 장애아동들을 위한 재활 클리닉 준비로 아랍 기독교 의료인들 연수를 진행하며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지는 국내 난민들과 아랍 의료 관광객들 대상의 봉사와 우정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속한 사단법인의 이사장님께서 국내에서 아랍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도록 권하셨고 그렇게 '희망의마을센터'는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봉사와 법률상담,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주요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아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만나 하우스'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만

나를 의미해 그렇게 칭했는데 리비아 가족의 여성이 "아! 만나다 to meet"이라고 말해서 그 의미도 맞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희망의마을센터와 만나하우스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이고 경찰청에서 위촉한 외국인 도움센터이기도 하기에, 최선을 다해 이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저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구도자들은 센터가 아닌 다른 장소

에서 1:1로 성경공부를 하며 천천히 양육합니다. 그렇게 성경공부를 하며 양육된 이들이 개종자들입니다. 개종자들은 구도자로서 양육되다가 결단을 하고 영접을 한 이들도 있고, 이미 본국에서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에 관심을 가져 한국까지 왔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예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종자분들과 함께 아랍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역현장에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복음과 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도 복음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역의 기회를 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난민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난민 신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글 Dr. Sam George



로잔 디아스포라 카탈리스트 국제디아스포라연구소장, 빌리그레이엄센터

“저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와 선교 웹사이트에 짧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피난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간과했던 구절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이슈는 분열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의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 제가 로잔운동의 디아스포라 카탈리스트로 영입되었을 때, 중동지역의 전쟁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촉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증가하는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많은 사람의 긴 행렬을 보고 세계 지도자들은 이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당시의 난민 위기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인식이 있었고, 뉴스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이민자였으며 유학과 사업의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했고 자발적 이주민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사업과 연관한 일을 하였습니다. 5개국에서 살면서 100개국 이상을 여행했지만, 난민처럼 강제로 수동적으로 이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이 난민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난민사역 지도자들을 만나 연구원 신분으로서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니며 이 난민 현상을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렌즈로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여러 나

라의 수많은 학자 및 선교 전략가와 상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극히 생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쟁 지역에서 탈출한 놀라운 이야기와 극도로 충격적인 경험담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의 삶에서 본 것보다 테러리스트에 의해 더 많은 신체적 부상을 입은 난민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척과 친구를 포함하여 그들의 마을과 도시에서 발발한 대격변의 사건으로 인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편, 극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구출되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게 된 이사(예수)와의 만남, 절대자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수많은 전 이슬람교도들의 믿을 수 없는 증언. 개종 이야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많았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연속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난민으로서 새로운 신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배우려는 열망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도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렸으며, 그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난민들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득력이 있으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충분한 준비나 정리 없이 흥분과 감동으로 계속해서 이들에게 다가가 만나곤 했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연속이었지만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했고, 계획된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난민들이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살아남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국, 캐나다 및 기타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제가 최근에 겪은 일과 발견한 사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와 선교 웹사이트에 짧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피난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간과했던 구절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이슈는 분열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의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은 난민 이슈에 대하여 더 많은 성도에게 도전을 주고자 제

게 난민들을 만나 기록한 체험 보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함)에 유럽 전역의 여러 도시를 특별히 여행한 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난민 신자를 사용하여 유럽의 역사적인 교회를 축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 시대의 난민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선교계의 많은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나라의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 단기 선교팀을 이끌었고, 그러한 선교 활동을 통해 난민들의 삶이 복음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보며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난민과 기타 강제 실항민을 위한 사역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이주된 난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난민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특히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든 인간 이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교회가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 Manna Mission Plan 67기 선발

MMP(Manna Mission Plan) 6기, MMP-W 3기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모집부문 및 지원내용	부문	대상	지원내용
국내 MMP	이주민	교회지원	아래 첨부
	MMP-W	기관지원	
		일반지역교회	
		이주민교회(탈북민교회포함)	
		이주민선교 관련 기관	

\* 부문 및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내 MMP**

- ① 재정지원 2022년 1월부터 월 100만원의 사역 지원
- ② 인적지원 만나교회 교구(동산), 청년부, 선교팀 자매결연 - 예배 참석 및 전도대, 단기선교, 교회행사 지원
- ③ 목회지원 김병삼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MMP 정기모임, 만나교회 7대 사역 매칭, 명성훈연(BTD, MDTS) 등 훈련지원

**MMP-W**

- ① 재정지원 2022년 1월부터 월 100만원(기관은 50만원)의 사역 지원
- ② 인적지원 만나교회 외국인 선교부 위원회, 선교팀 및 청년부와 자매결연
- ③ 선교지원 선교지와 사역 네트워크 및 추후 선교 센터 사역 연계

**2. 선발과정**

- ① 서류접수마감 9월 25일(토)까지 이메일 접수 및 MMP 실무팀 앞 등기소인 해당일 까지  
국내 MMP mannmissionplan@gmail.com / 이주민 MMP mannmissionplanw@gmail.com
- ② 서류접수내용 **국내 MMP**
  - ㉠ 기본신청서(신청서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목회계획서(MMP선발이 되었을 경우, 만나교회와 함께할 오프라인 사역 및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계획)
  - ㉢ 프리젠테이션 PPT(교회소개, 코로나 기간 중 진행했던 오프라인 사역 및 온라인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 운용 여부)**MMP-W**
  - ㉠ 기본신청서(신청서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역소개서(교회 소개 및 사역 소개 포함 / 기관인 경우는 사역 소개 포함)
- ③ 서류접수결과 2021년 10월 2일(토)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현장실사와 최종선발 세미나 (2021년 10월 중순 예정)를 거치면서 부적합할 경우 차점자를 통한 추가선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최종선발발표 2021년 11월 7일(주일)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2022년 1월 이후 지원이 시작됩니다.

**만나교회**  
담임목사 김병삼  
134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53  
Tel 031-706-3351-8 / Fax, 706-3350  
www.manna.or.kr

서정일 · 영국 선교사



서정일 선교사가 직접 그린 해바라기 밭 작품

# 연약한 나를 세워 믿음의 거인 되게 하사



서정일 WEM 선교사

**초**록의 잔디밭에 민들레 꽃이 솟아올라 있으면 잡초라고 해서 뽑으려는데 뿌리가 깊어서 잘 뽑히지 않는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민들레 꽃이 하얀 흙씨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장난삼아 후욱-- 불 때도 있다. 그러면 하얀 흙씨들이 티끌 되어 사방으로 흩뿌려진다. 민들레 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

해 보게 된다. 민들레 꽃 같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의 양식으로 입히시고 지상의 곳곳에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다. 민들레 꽃 흙씨같이 연약한 나를 믿음의 거인으로 불러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정체성으로 보내셨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파종해 주셨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홀로서기 하면서 세워나갈 수가 없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공동체, 교회공동체인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다. 서로 간에 믿음과 신앙의 버팀목이 되자. 이

땅 가운데 주바라기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선교적으로 서로 세워가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공동체와 거룩한 교회공동체를 주셨을까? 타향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붙잡아주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가 있어서 각자 신앙이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돕고, 세워준다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서로에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보자! 세상 들판인 이곳이 내 믿음을 풍성하게 세우는 곳이다.

정홍기 · 루마니아 선교사

#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

선교사의 길을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한 여정



정홍기 선교사

2021년 7월 11일 루마니아 북쪽 우크라이나 국경 옆 도시 부코비나에 왔다. 루마니아 북음주의 교회의 중심인 이곳에서 KOREA MARE 운동이 시작되었다. 오늘 아침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작은 교회인 DUMBRAVA 순복음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 한 시간 동안 마 28:18-

20 말씀에 인하여 북한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며 루마니아 교회의 사명으로 기도와 선교사 파송을 준비해야 함을 설교하였다. 산속 깊은 작은 마을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예배 후 KOREA MARE 회장인 PAVEL CLIPA 목사의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그는 공산주의 기간 비밀리에 성경 보급을 하다 비밀경찰에 잡혀 고문당한 후 42세 나이로 순교를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너우치에 바지와 치마 속에 성경을 숨기어 전달한 후 폴란드의 크라코브까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서 성경을 보급하였다.

묘비에 “죽음을 위해 가치가 없는 일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삶의 좌우명을 갖고 살다 순교한 파벨 아버지의 묘소에서 선교사의 길을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KOREA MARE의 사무총장인 친구의 딸 결혼식에 참가 하였다. 많은 하객이 깊은 산중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배에 참여해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축복 해주었다. 이는 가정의 중요함을 모범으로 보이는 이곳 교회들의 가치이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일곱에서 아홉 명까지의 자녀를 낳아 주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을 보니 날로 자녀 낳기를 꺼리는 현대 도시 사회에 대한 도전을 남긴다. 이렇게 부코비나에 북한 선교를 위한 기초를 놓고, 내일은 다시 600km를 넘는 먼 길을 가게 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임에 감사를 드리며, 이 여정을 함께 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 예손치과의원

Since 1997

Jesus'hands Dental Clinic



원장 이 상 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3 유성트윈동관 304호 (서현역 이매촌 출구)

Tel. 031-704-2888

Fax. 031-704-2886

Mobil. 010-5704-2088

E-mail. matw2@hanafos.com

성실하게 한결같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이현아 원장

# 다문화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정확히 점검하라

###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 1.34%... 세심한 배려 필요해



아로 리터러시 교육원 원장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수업 역시 기본적인 형식과 방법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이 지닌 개별 특성에 따라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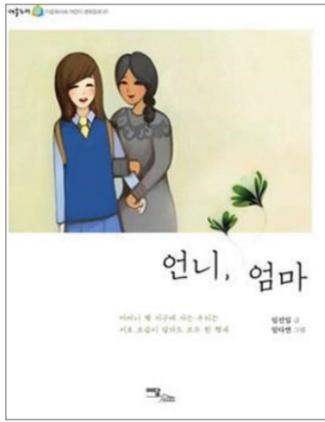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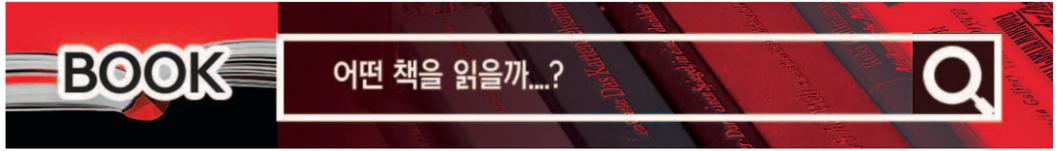
특히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독서지도를 하기 전, 언어 발달 수준과 독서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독서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2018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34%로 전체 중학생(0.73%)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학습 부진은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해력 부진 때문에 발생한다.

전문적인 독서지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좋은 해결책이다. 교육부 지원사업인 '2020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영역은 크게 세 영역이다.

첫째는 학교 교육 지원, 둘째는 언어·학습 지원, 셋째는 진로·정서 지원이다. 이 세 영역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발달 및 사회 적응, 자립적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영역들은 모두 독서 수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좋은 독서 자료와 독서지도 방법 또한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다.

좋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문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를 권한다.



## 언니, 엄마

임선일 / 이담북스 / 2012 / 10,000원

**이** 책은 이방인과 한국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미래상을 수진이네 가족을 통하여 보여주는 동화책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6학년 여자아이 수진이는 뛰놀기 좋아하고 밝은 성격의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다. 그런 수진이에게는 큰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얼굴 까만 엄마가 있다는 것. 다섯 살 때 엄마를 여윈 수진이에게 새로 생긴 얼굴 까만 엄마는 말도 통하지 않고 바보 같지만 하다. 한없이 웃을 줄만 알지 한국에 대해서, 또 수진이에 대해서 통통 모르는 엄마와 수진이가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책을 통해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행복한 한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

손소연 / 테크빌교육(즐거운학교) / 2018 / 15,000원

**지**난 10여 년간 도시형 다문화의 대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교사였던 저자가 아이들과 생활하며 경험한 에피소드를 빠짐없이 담았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가 어렵פות이 알고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상상도 못 했던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진짜' 다문화 이야기에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밤새 마작판에서 심부름하고, 빈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다방에서 티켓을 파는 아이들의 이야기, 학기 중에 결혼을 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고민, 고국으로 돌아가며 잠시 휴학했던 중학생 아이가 1년 만에 대학생이 되어 나타난 일 등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도시형 다문화 에피소드와 교사의 고민과 대처법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 짜장면 왔습니다

진수경 / 책읽는곰 / 2017 / 12,0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맛있는 역사! 출출한 점심에도, 느긋한 주말에도, 특별한 기념일에도, 짜장면이 최고!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 속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추억이 담겨 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조금 낯선 또 다른 이웃의 이야기. 중국에서 건너온 '자지앙미엔'이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짜장면'으로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백 년도 넘는 긴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출간되어 취학 전 아동들에게 읽어주기 편한 책이다.



###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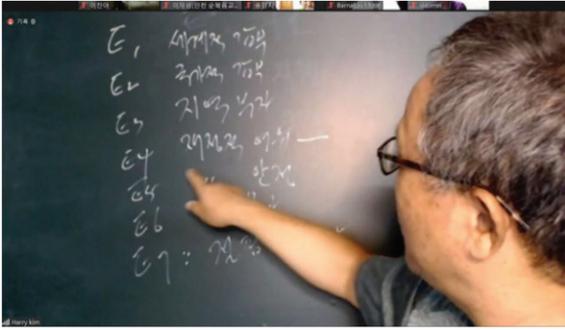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 위디국제선교회 주관, MMTS 심화과정 3기 개강



위디국제선교회가 주관하는 이주민선교훈련학교(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이하 MMTS)가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심화 과정을 진행한다. MMTS는 이주민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심화 과정은 MMTS 클래식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료자들은 국제문화교류지도사(IC: International Communicator) 자격증 정보와 응시 지원을 제공받는다. 9월 6일 첫 강의 주제는 '이주민 선교사의 사명과 영성'이었다. 강사로 나선 해리 김 목사는 "거룩은 마치 따뜻한 난로 같아서 주변의 추운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며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이주민들을 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심화 과정 강의는 '상황화 모델과 다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단일문화권에서의 다문화 사역', '이주민 환대와 화해 사역', '이주민들과의 좌담회', 'BAM(Business as Mission)과 통전적 선교',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선교와 환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하소미 선교사 010-3335-2449)

### 중단 없는 복음, 必通(필통)에 담겨 '땅끝 12' 프로젝트로 탄생하다



김필통 선교사는 MMTS 15기 출신이다. 그는 2015년 선교 단체 필통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여 이주민과 그들의 국가를 섬기는 사역을 해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필통 미니스트리는 오대양 육대주를 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21개국에 약 6천여 개의 필통을 보냈다. 코로나19 사태로 필통을 보낼 수 없게 된 후부터 모금과 기도를 통해 땅끝 이웃을 섬기는 '땅끝12'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운동으로 도미니카, 태국, 말라위 등 총 17군데의 지역 및 난민을 도왔다. 18번째로 섬기게 될 나라는 우간다이다. 이번 사역은 우간다의 김순옥 선교사(GMS)와 협력하기로 했다. 우간다를 섬긴 지 26년이 된 김순옥 선교사는 우간다 쿠미 지역에 두 학교(학교명: 조이, 조이킴)를 세웠다. 두 학교는 현재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기독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땅끝12'는 두 학교 학생들을 위해 원피스, 볼펜, 크레파스 등 성탄절 선물과 모금액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김필통 선교사 010-5463-5107 / 유튜브에서 '땅끝12'를 검색해주세요)

### 한국이주민선교단체협의회 (KIMA), 임시총회 열리다



한국이주민선교단체협의회(Korea Immigrants Missions Association, 이하 KIMA)가 9월 13일 새중앙교회 미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KIMA는 2019년 오륜교회에서 출범한 단체로 전국이주민선교연합, 이선한네트워크, KIN(Korea Intercultural Network) 이후에 새롭게 조직된 국내 이주민 선교 단체 협의체이다. 임시총회의 사회는 사무총장 이형로 목사가 맡았고, 설교는 상임대표 신상록 목사, 대표 기도예 허은열 목사, 합심 기도예 서기원 목사, 축도는 허명호 목사(공동대표 5명)가 맡았다. 1부에서 상임대표 신목사는 설교(엡4:1-4)를 통해 KIMA가 포용과 화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과 행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는 본회의가 개회되어 정관 제정 안건이 상정되었다. 임원들은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정노아 목사(고신), 이익성 목사(순복음), 차훈 목사(통합), 남양규 목사(합동), 공동대표들을 개정위원회로 조직하여 3개월의 심의 후 총회에서 정식 정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청 후 참여한 회원 소개와 사무총장의 폐회로 임시총회가 마쳤다. 한편 신상록 목사는 "주변의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었으나 선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계의 현실로 인해 후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어서 "이주민 선교사역의 정체성을 함께 세워갈 정신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었다.

### 이주민 선교단체 열방선교네트워크, '이주민 선교 방안' 주제 포럼 개최

경기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주민 선교단체 열방선교네트워크(대표 이용웅)가 오는 10월 28일 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이주민 선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다문화 가정 선교(박승호 선교사)', '태국 포천 이주민 선교(이미희 선교사)', '난민 이슬람 이주민 선교(김종일 선교사)', '유학생 선교 개척 사역(남해남 선교사)', '스포츠 축구 특수 선교사역(이광구 선교사)', '선교사 건강관리 활동(신봉수 선교사)', '경기북부 이주민 선교 실태와 비전(열방선교네트워크 사무총장 임광순 장로)' 등의 발제로 이어진다. 논찬은 위디국제선교회의 문창선 선교사가 맡는다. 포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줌(Zoom)으로 진행된다.(문의 안정호 선교사 010-2779-0436)

### 귀국 선교사 5천명 위한 MMTS 4P 훈련 10주간 줌(Zoom)으로 진행 된다



귀국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 맞춤형 선교훈련 프로그램 MMTS 4P가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주간 줌(Zoom)으로 열린다. 4P 훈련은 이주민 선교훈련학교(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를 바탕으로 기도 사역(Pray), 이주민 선교를 맞보는 과정(Pre-Mission), 개인의 재능과 은사를 확인(Prism)하여 실제적인 사역에 적용하는(Peg, 사 22:23) 단계로 진행된다.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주민 신학', '정부 정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선교', '단일문화권에서 행하는 타문화 사역', '사례연구', '개인별 맞춤 선교 컨설팅', '현장 탐방', '사역계획 발표' 등이 있다. MMTS 4P는 위디국제선교회가 주관하며 로잔디아스포라, NextMove, iCDM(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 주안대학원대학교가 협력한다. (문의 임진숙 선교사 010-7590-0691)

### 사단법인 아시아인마을, 추석맞이 코.끼.리 선물나눔



사단법인 아시아인마을에서는 지난 9월 18일(토) 추석을 맞이하여 "이기자, 코로나! 끼와 꿈을 키우는 리(이)주민자녀 선물나눔"이라는 슬로건

으로 [추석맞이 코.끼.리 선물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학용품을 나누는 행사로 위킹스루를 통해 이루어졌다. 코.끼.리 선물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겨졌다.

김필립 기자  
wearelin7@gmail.com

**화상영어 스피킹 JD CLASS**  
초.중.고 대학생, 성인 기초  
누구나 가능한 영어SPEAKING TRAINING (1:1 화상영어)

네이버 검색 : 제이디 클래스 ( native05.com )  
하루 25분, 주3회, 4회, 5회수업 문의 : 010-4616-1913

» **암미선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김영애 선교사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정진학 목사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온오프라인 동시 예배  
www.central.or.kr

구분	시간	대상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박승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한족	양아진 전도사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인	잡할란 전도사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김진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인	원중빈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러시아인	김빅토르 목사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네팔인	산제이 전도사

»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예배실	김조훈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ttps://www.facebook.com/groups/161623585179481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박다니엘 목사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www.or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박지윤 전도사
중국어예배		본관 7층 다니엘홀	유요셉 목사
일본어예배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이슬기로 목사
인도네시아어예배		오륜지역아동센터	테오피릴라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오륜국제한가족센터	임혜림 목사
벵갈어예배		제1교육관 2층	차순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오륜국제한가족센터	흰튀탄튀 전도사

» **새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www.sja.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교육관 3층 고등부실	위다니엘 목사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교육관 3층 유년부실	신자설 전도사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2호	응웬시푸 목사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3호	줄리아니 목사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2호	유혜란 목사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5층	김옥환 목사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비전센터 4층 가운데 402호	델게레흐 전도사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3호	남인 목사

»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www.goh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본당 평강홀	최윤갑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바울관	강민환 목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센터 바울관	강영애 사역자

»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 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예배실	박성규 선교사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종만 목사

»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 www.dream10.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B1 Event Hall	현한나 목사

»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www.dgmc.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예배실	유근영 목사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페이스북 생방송	정상엽 목사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Zoom 예배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예배실	

» 새생명태국인교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홍광표 목사

» 아시아인마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www.ainma.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조혜숙 목사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 사단법인 올프렌즈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www.allfriends.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예배실	남궁성 목사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2:4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익성 목사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문성주 선교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 위디국제선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산소망교회	Jennet Eledi 목사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ZOOM	임진숙 목사

※ 이주민 예배 안내를 원하시는 교회들의 문의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mailto:izina@hanmail.net)

신앙시 한 편

10월의 기도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  
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작자 미상)



HOME INFO.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6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 newspaper

발행인 황덕영 목사  
편집인 문창선 목사

편집국장 이창배 목사  
[gypy227@naver.com](mailto:gypy227@naver.com)

총괄본부장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mailto:seunghyelee@naver.com)

편집국 기획부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mailto:divinegrace2237@gmail.com)

편집국 사회부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mailto:chohunjung@hanmail.net)

편집국 교육부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mailto:hexiaomei@naver.com)

편집국 인터넷 민경일 기자  
[piellove@naver.com](mailto:piellove@naver.com)

편집국 선교부 김필립 기자  
[weare1in7@gmail.com](mailto:weare1in7@gmail.com)

편집국 이상호 객원기자  
[matw2@hanafos.com](mailto:matw2@hanafos.com)

편집국 권대식 수습기자  
[intruthinlife@gmail.com](mailto:intruthinlife@gmail.com)

편집국 문예은 수습기자  
[1215grace@naver.com](mailto:1215grace@naver.com)

온라인 편집팀장 김혁준 목사  
[loke0114@gmail.com](mailto:loke0114@gmail.com)

행정/재정팀장 이진아 선교사  
[izina@hanmail.net](mailto:izina@hanmail.net)

디자이너 김기옥 선교사  
[seuwandi@hanmail.net](mailto:seuwandi@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번지/ 새중앙교회 세계선교  
센터 508호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mailto:witheeman@gmail.com)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www.diasporanews.kr](http://www.diasporanews.kr)

K\_디아스포라의  
Now & Here  
〈아이앤유저널〉

inuc.net

아이앤유저널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언론문화  
사역을 펼쳐갑니다.  
[gypy227@naver.com](mailto:gypy227@naver.com)

#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 200 Nations Leaders' Missions Congress I

성경, 기도, 전도 -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

### 11.2(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Ben Torrey  
Jesus Abbey  
The Fourth River Project



Stanley John  
Professor of Missions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in Nyack



CB Samuel  
인도 순회 성경교사



Daniel Jaylaj  
Andrew Wall Institute  
Hope University



Gideon Adeoye  
Christ Apostolic  
Church Gambia



신화석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대표  
AWMJ 선교회 이사장

### 11.3(수)



최남수  
광명교회 담임목사  
세계기독교학고 대표



EF Tendo  
AWMJ 국제자문위원  
WEA 영버서더



TV Thomas  
GMN 대표



Liliana Quintero Ramos  
Iglesia Cristiana de Alcance y  
Discipulado, ICAD



신화석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대표  
AWMJ 선교회 이사장

### 11.4(목)



Cecille Casino  
Gardner Webb Univ.



Jonathan Bemis  
AWMJ 국제자문위원  
국제 유대인인소리 선교회 대표



John Baxter  
Converge  
NextMove  
Frontier Ventures



Jeff Moody  
NextMove Co-Director  
Frontier Ventures



Bambang Budijanto  
General Secretary  
Asia Evangelical Alliance



Loren Cunningham  
YWAM, 열방 대학 창립자



신화석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대표  
AWMJ 선교회 이사장



Kerrie Young  
Christian wife and  
mother of six children



강승삼  
전 KWMA 대표회장



김문훈  
포도원교회 담임목사  
KWMA 부이사장

**대회기간** 2021. 11. 2.(화) - 4(목)

**방법** 비대면 온라인대회 (YouTube, Zoom, CTS 기독교TV)

**등록신청** 1차 등록 (2021. 09. 30.까지) 1인당 10,000원  
2차 등록 (10. 01. ~ 11. 02.) 1인당 15,000원  
<https://bit.ly/200awmj>, [www.awmj.org](http://www.awmj.org)  
우리은행 1005-204-166902 (사)에이더블유엠제이선교회

**대회본부** Tel 031-994-6010, awmjacts@gmail.com

**주최** AWMJ 성경 에이더블유엠제이선교회 Antioch World Missionary Journey / KWMA 성경 열방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Global Evangelism Association

**협력기관** Lausanne Movement, IFES, GLOBAL DIVERSITY NETWORK, COMIBAM, amn, Jewish Voice, ICDM, AEA, Andrew Walls Centre

**주관언론방송** CTS 기독교TV, 국민일보, fbc 기독교방송

온라인등록

